

# 벌꿀이 안나온다

### 가뭄·고온현상... 예년의 30~50% 채취 그쳐 쉬나무 등 밀원수 식재 양봉산업 육성 절실



지난 가을부터 지속된 가뭄과 30℃를 웃도는 불철 고온현상으로 인해 올해 벌꿀 생산에 비상이 걸려 밀원수(蜜源樹) 식재 등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전남지역 양봉인들에 따르면 올해 꿀 생산량이 예년의 30~50%에 불과해 아카시아가 나오기 전까지는 '황화현상'으로 흉작을 이룬 2004~2007년에 맞먹을 정도로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봉인들은 "예년의 경우 5월 5일부터 20일까지 피던 아카시아꽃이 올해는 개화기 고온현상으로 10일 정도 빠른 4월 25일께 개화했다"며 "이로 인해 일교차에 따른 냉해를 입어 꽃의 꿀샘이 얼어버린 데다가, 가뭄까지 겹쳐 수분부족으로 꽃들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시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아카시아→때죽나무→필레꽃→감꽃→밤꽃 등 순차적으로 개화하는 꽃을 따라 북상하며 꿀을 채취했으나, 올해는 고온현상 때문에 밀원들이

거의 동시에 조성된 것도 흉작의 원인이 됐다. 지적이다.

34년째 양봉을 하고 있는 전양현(55·보성군)씨는 벌통 200통을 갖고 지난해 초 아카시아가 많은 경북 대구 인근을 시작으로 서울, 화순을 돌며 올해 꿀 채취에 나섰으나 아카시아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쓴맛을 봤다.

예년같으면 벌통 1개당 60kg의 아카시아 꿀을 생산했으나 올해는 10kg에 그쳤고 그나마 무등산 남쪽지역에서 산야초 꿀을 통당 20kg을 채취, 풍작을 이룬 지난해 수확량의 50%선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양봉인들은 "최근 벌꿀 흉작과 함께 일벌들이 집단으로 사라져버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군집붕괴 현상(CCD)'과의 연관성 등 인위규명이 절실하다"면서 "전남지역의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전남지역에 쉬나무, 햇나무, 윗나무, 광나무 등 꿀이 많이 나오

는 밀원수를 심는 한편 전남 각 지자체에서 소나무 위주로 진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역시 토질이나 지형에 따라서 왕벚꽃 등 자생하는 나무들을 남겨둬야 밀원이 될 수 있다는 양봉인들의 설명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아카시아가 집중적으로 식재되고 '양봉특구'로 지정된 경북 칠곡군의 경우 수년 전부터 국유지 등지에 햇나무를 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외지 양봉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보성 꿀벌연구회 안시욱(70) 회장은 "꿀벌은 꿀 생산만 아니라 과수의 꽃가루 수정 등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며 "전남도와 각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 밀원수 조림과 보존 등을 통해 양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은 전국 양봉농가(4만여 명)의 약 10%인 4천500여 농가에서 꿀을 생산하고 있다.

/송기통기자 song@

## 남도 농수산물 수도권서 '인기몰이'

### 해남 쇼핑몰 판매 73억 대박

해남군이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이하 블루오션)'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블루오션 마케팅 활동을 통해 모두 73억원의 매출과 4만여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특히 서울 상주 마케팅 전담팀인 '해남 미소'는 출항 향우와 농수산물 주 구매층인 주부들을 위해 노원·송파·강동구를 비롯한 수원·고양시 등지에서 수시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열어 고객을 확보했다.

군의 이러한 블루오션 마케팅에 따라 전화 주문, 해남 미소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5대 종합 쇼핑몰, 흡수

빙 방문판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년보다 240% 상승한 73억 원의 농수산물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50억 원보다 150% 초과 달성한 결과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흡수빙 방문판매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올해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인터넷과 흡수빙, 향우 판매 등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독자적인 유통 채널망 구축,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개, 전담팀 수도권 상주 등 군이 세운 농수산물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해남=박희성기자 dia@

### 장성 직거래장터 5억 매출

장성군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과천시 중앙공원 분수대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6천700여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이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15일 정무 과천시에서 '그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김치·장아찌류 등을 2천만원 어치를 팔았는가 하면 22~28일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청국장 분말·감식초 등을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적인 직거래 장터도 개설해 운

영 중이다. 과천 경마공원에서는 5월부터 매주 목요일 곱감·오디·복분자·감식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서울 중구청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토요일에 행복나눔장터를 열어 쌀·사과·대봉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직거래 장터 개설로 장성군은 올해 5억여원의 판매고를 기록,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 장성군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농가에게 고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제공해 도·농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 감식초 등을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성=류종성기자 yjs52@



수련꽃 만개... 관광객 발길 줄이어  
3일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에 조성된 수련 연못에 20여 종류의 수련꽃이 활짝 피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의 수련꽃은 주변에 만개한 꽃창포와 조화를 이뤄 공원 관람객과 사진작가들의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사랑나눔 토마토 봉사단

#### 6~7월 강진서 무료 진료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사랑나눔 토마토 봉사단'이 6월부터 이틀간 강진 동초등학교 교실내 체육관에서 무료 진료에 나선다.

진료과목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한의과, 진단영상학과, 통증의학과, 소아과, 내과 등 모두 10개 분야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서울 삼성의료원, 차병원, 함소아 한의원 등에서 20여 명의 의료진이 봉사단에 참여한다.

봉사단은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퇴행성 질환과 구강질환, 팔다공증 등에 중점을 두고 진료를 할 계획이다. 안병환에게 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을 못하는 주민도 서울 병원과 연계해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 6일에는 오전(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과 오후(마량면, 도암면, 신천면, 울천면)로 나누고, 7일에는 나머지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주민을 진료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청자의 신비를 만난다

### 8월 8~16일 축제- 선박 퍼레이드·1천개 청자 종소리 등 체험

제 37회 강진 청자축제가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강진 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흙·불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기획 행사 세부 프로그램이 14개에 이르고, 전시(10개), 공연(24개), 체험(29개), 부대행사(33개)까지 5개 부문 110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100여척의 선박이 펼쳐지는 개막축하 선박 퍼레이드와 유람선을 이용해 강진만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강진만 선상체험, 강진만 갯벌체험 등이다.

또 고향 할머니 장터, 상설 물레체험, 고려왕실 행차, 1천여 개 청자 종소리 체험, 청자 박물관 '어거처 온누비호' 백길 재현 등은 청자촌을 찾은 관광객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될 전망이다.

허수아비 전투장 재현, 테마가 있는 허수아비촌, 청

자와 어우러진 포토존, 옛 농촌 자연학습포장 등은 도시민에게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

축제 기간에는 매일 주제를 정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만남(8일), 외국인(9일), 희망(10일), 여성(11일), 실버(12일), 가족(13일), 화합(14일), 청소년(15일), 약속(16일)의 날 등이다.

입장료에 해당하는 역수를 쿠폰으로 발행해 강진지역에서 식사, 숙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제를 확대, 시행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수국·미니 밤호박 틈새소득 작목으로 도 농기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호응

틈새·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거나, 기존 특화된 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시도하는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을 전개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국 절화(折花) 재배 ▲고품질 수출 국화재배 ▲도시지역 친환경 민속채소 명품화 사업 등 총 30여개 사업을 지원했다.

지난 2007년 강진에서 시도한 수국 재배는 성공적으로 정착해 매주 1천 송이씩 높은 가격에 일본시장에 수출

되고 있다. 또 지난 2008년에는 해남군에 미니 밤호박을 노지재배보다 40일 앞당길 수 있는 재배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이러한 조기 재배는 저온기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이중 하우스와 보온터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해 관행보다 5~7℃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동안 미니 밤호박은 노지에서 재배하면서 흰가루병 등 병해충 피해가 심하고 수량이 낮아 농가들이 재배를 꺼려왔다.

/송기통기자 song@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주)국민법률경제대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공인중개사 : 김행숙 0621351-8240 H.P 010-7203-1100

| 구   | 소재지  | 면적(m)   | 건평(m)  | 최대가    |
|-----|------|---------|--------|--------|
| 광안구 | 소매지  | 102     | 8천7백   | 6천     |
|     | 한성   | 108     | 7천     | 4천9백   |
|     | 한성   | 843/341 | 29322㎡ | 19622㎡ |
| 남구  | 주공단지 | 85      | 6천3백   | 4천4백   |
|     | 해운대  | 112     | 19322㎡ | 9천9백   |
|     | 해운대  | 112     | 19322㎡ | 8천9백   |
| 북구  | 주공단지 | 95      | 9천9백   | 6천3백   |
|     | 주공단지 | 89      | 19322㎡ | 19322㎡ |
|     | 주공단지 | 74      | 6천6백   | 4천4백   |
| 서구  | 주공단지 | 108     | 6천3백   | 4천4백   |
|     | 주공단지 | 105     | 19322㎡ | 8천9백   |
|     | 주공단지 | 105     | 19322㎡ | 7천2백   |
| 동구  | 주공단지 | 159     | 29322㎡ | 29322㎡ |
|     | 주공단지 | 85      | 7천     | 29322㎡ |
|     | 주공단지 | 89      | 6천     | 4천4백   |
| 북구  | 주공단지 | 82      | 6천     | 6천     |
|     | 주공단지 | 102     | 9천9백   | 9천9백   |
|     | 주공단지 | 102     | 8천9백   | 8천9백   |
| 북구  | 주공단지 | 165     | 19322㎡ | 19322㎡ |
|     | 주공단지 | 112     | 29322㎡ | 29322㎡ |
|     | 주공단지 | 112     | 29322㎡ | 29322㎡ |
| 북구  | 주공단지 | 105     | 9천9백   | 6천3백   |
|     | 주공단지 | 112     | 19322㎡ | 7천2백   |
|     | 주공단지 | 82      | 9천9백   | 6천3백   |
| 북구  | 주공단지 | 161     | 29322㎡ | 29322㎡ |
|     | 주공단지 | 79      | 8천9백   | 5천9백   |
|     | 주공단지 | 108     | 19322㎡ | 19322㎡ |
| 북구  | 주공단지 | 108     | 9천     | 6천3백   |
|     | 주공단지 | 75      | 8천     | 8천     |
|     | 주공단지 | 69      | 7천     | 4천4백   |
| 북구  | 주공단지 | 72      | 5천5백   | 5천5백   |
|     | 주공단지 | 75      | 8천9백   | 6천9백   |
|     | 주공단지 | 2       | 29322㎡ | 19322㎡ |
| 북구  | 주공단지 | 221     | 49322㎡ | 29322㎡ |
|     | 주공단지 | 89      | 19322㎡ | 7천     |
|     | 주공단지 | 102     | 19322㎡ | 19322㎡ |
| 북구  | 주공단지 | 102     | 19322㎡ | 19322㎡ |
|     | 주공단지 | 105     | 19322㎡ | 19322㎡ |
|     | 주공단지 | 151     | 19322㎡ | 19322㎡ |
| 북구  | 주공단지 | 102     | 19322㎡ | 8천9백   |
|     | 주공단지 | 79      | 5천5백   | 5천     |
|     | 주공단지 | 102     | 8천9백   | 8천9백   |
| 북구  | 주공단지 | 105     | 19322㎡ | 19322㎡ |
|     | 주공단지 | 108     | 19322㎡ | 19322㎡ |
|     | 주공단지 | 102     | 6천     | 4천4백   |

경매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동산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